

2026년 6월호(제 258호)

소중한사람들

제비꽃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너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어린 가슴만
보랏빛으로 두근거리다.

하얀 목련
붉은 진달래...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틈새에서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고
너는 너로서
담담히 서 있다.

가장 작은 꽃이지만
가장 큰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어둠 밑으로
뿌리내리고
오늘 하루를 영원처럼
아주 한 밤중에도 깨어있구나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aling.com

스피커는 소리만 잘 내면 된다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1989년 여름, 교회에 일본인 열 명 남짓이 찾아왔다. 평소 교류하던 일본 선교사님이 아는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2주 정도 머물고 싶는데 교회 숙소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흔쾌히 허락했다.

당시 교회는 평화시장 건너편, 종로6가 로얄빌딩에 임대로 있었다. 교회에는 고아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큰 방이 두 개 있었다. 12층에 있는 여자 방은 창문이 크고 밝아 청계천 고가도로와 평화시장이 내려다보이는 공간이었다. 반면 13층에 있는 남자 방은 건물 중앙에 있어 창문이 없고 환기도 잘되지 않아 퀘퀘한 냄새가 났지만, 이층침대 8개가 들어가는 넓은 방이었다.

당분간 한 침대에 두 명씩 사용하도록 하고 남는 침대를 일본인들에게 내어주기로 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같은 방을 쓰는 것이 불편할 수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대신 최대한 깨끗하게 준비했다. 이불을 다시 빨고 침구를 정리했다. 당시에는 큰 세탁기가 없어 큰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 발로 밟아 이불을 빨았다. 그렇게 쓸고 닦고 정리하다 보니 어느덧 일본인들이 도착했다.

13층짜리 건물의 12층과 13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으니 엘리베이터가 끝까지 올라오면 교회로 오는 사람이다. 예배가 없는 평일이라 다른 사람이 올 일도 없었다. 점점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카운트다운처럼 보였다. 드디어 철로 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일본인들이 내렸다. 그들에게 멋지게 환영하고 싶지만 일본어를 몰랐던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평생에 일본인을 처음 봤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우리도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인터넛도 없던 시절이라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원하는지 일상적인 문화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림을 그리며 대중 소통했는데 이들은 동경신학대학생들이었다. 신학생이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일본은 신학을 글로만 공부하는 사람도 많다.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신학을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었다. 우리교회와 연결되기 전에 서울에 위치한 다른 교회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 거절해왔다고 한다. 찾고 찾다가 후보에도 없었던 우리 교회로 온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교회로 왔으니 진심으로 잘 대해 주고 싶었다. 후시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여주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내 남편 목사님은 그 일본인들을 여기 저기 데리고 다녔다. 양화진 순교성지라든지, 일본인이 한국인을 고문했던 사실을 재현한 곳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들은 무척 가슴 아파하며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남편은 좋은 식당에도 데리고 다니다가 밤이 돼서야 교회로 돌아왔다.

관광은 남편이 잘하고 있는 듯 한데 속식을 책임지는 내가 미흡했다. 햇별이 드는 여자 방은 쾌청했는데 남자 방을 쓰는 일본인들은 퀘퀘한 냄새에 좀처럼 적응하기 어렵나보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외국인인 신기한지 자꾸만 다가간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림을 그리며 의사소통을 했다. 대단한 소통을 한 것도 아니다. 일본인이 사자를 그려주면 “와~ 사자다” 이라고 있다. 아이들이 후시 낮 관광으로 지친 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염려해 자제시키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막기는 어려웠다. 요리 중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인 된장국을 대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미소된장국으로 생각했다가 한국 된장의 강한 맛에 당황하기도 했다.

2주라는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 다음 날이면 떠나 보내야 했다.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열심히 잘 대접해줘서 감동받아 활짝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문화와 언어의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았다. 마음을 못 열어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대로 보내야 하는가. 2주나 함께 지냈는데 이 영혼들이 그냥 관광만 하고 떠나게 생겼다.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잠들었다가, 그들이 떠나는 날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찍 눈이 떠졌다. 새벽기도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혼자 텅 빈 12층 예배당에서 기도했다. 문득 사도행전 2장이 떠올랐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내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발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나?”(사도행전 24-12)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은 방언기도를 했다. 그 방언은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못 알아듣는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 당시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외국어였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모였고 복음이 전해졌다.

언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며,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결국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믿어졌다.

아침이 되어 떠날 준비를 마친 동경신학대생 중 한명인 다나카라는 학생이 불쑥 내게 다가와 기도해 달라고 했다. 나는 후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려나 하고 무조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믿었다. 내 입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분명 일본어였다. 나는 일본어로 방언기도를 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놀란 눈으로 숨죽이며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다. 놀란 다른 사람들과는 반대로 다나카는 홀로 평평 울었다. 기도가 끝나고 뭐라고 나에게 설명하지만 그때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니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나카를 만나주시고 회개시켰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곧 다른 일본인들도 기도를 요청해왔고 갑작스러운 전체 기도회가 시작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의 문이 열렸다. 그들은 놀라고 신기해했다.

그들은 더 머물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비행기 시간 때문에 떠나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을 연결해 준 일본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나카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한국인 여자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일본어로 말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척하며 억지로 신학생이 됐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는 자기만 아는 비밀까지 전부 말했다고 한다. 자기의 인생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이 거절된 자기를 꾸짖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에, 그것을 한국에서 일본어로 들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고 한다. 이제는 진심으로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다른 십여 명 신학생들도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외국어 방언을 경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것은 나의 영성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나는 그저 스피커였을 뿐이다. 도구의 역할은 온전히 내 의지를 없애고 도

구를 쓰는 자가 원하는 대로 휘둘러지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에 2주간 머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리라.

소중하신사람들 사역하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누군가 사무실 철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 삶이 무너진 노숙인이 도움을 요청한다. 수많은 노숙인 협력 단체가 있을텐데 여기 저기 다니다가 어쩌다 우리에게까지 순서가 왔나보다.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정성과 노력이 이불을 밟아 빨아도 여전히 퀘퀘한 냄새가 날 뿐인 것처럼 만족스럽지 않다. 정성을 다한 음식을 해도 향이 강한 된장국을 대접해서 그 일본인들을 당황케 했던 미흡함이 떠오른다. 점심 급식으로 소고기 반찬을 냈다. 치아가 없어서 부드러운 음식을 내놓으라고 매일 으름장을 놓는 노숙인이 “또 못 먹을 딱딱한 음식을 냈어?”라며 화를 낼까봐 걱정을 했지만, 놀랄게도 고기는 또 맛스럽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다행이다 싶어 마음을 풀어내었다.

목요 기도회에서 설교하기 위해 청평힐링센터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배당 층에서 멈춘다. 철문이 열리니 그 앞에서 암 환우를 마주쳤다. 내 손을 부여잡고 고통에 신음하는 하소연에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종로 로얄빌딩 12층 엘리베이터 철문이 열리고 만난 일본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애써 미소 지으며 인사만 하던 무력한 내가 아직도 그대로 서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워 새벽 일찍 눈이 떠진 나는, 12층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때를 추억하며 홀로 앉아 기도한다. 몇 시간 후면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이 철문을 열고 들어온다. 언어는 같지만 서로가 살아온 환경도 종교도 문화도 다르고 인생도 달라서 무슨 말을 해도 잘 전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마치 일본인에게 말하는 것 같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미소만 짓겠지...

하지만 후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리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어떤 일을 해줘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입을 통해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이 알아들을 말이 나오길 바란다. 그들의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한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이며 스피커일 뿐이다.

“주님, 편히 쓰소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겠습니니다.”

글/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낮은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함께 모이는 기도의 능력

저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유튜브 예배에 접속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모임 이름을 Log In Day라 지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받으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받지 못하셨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겠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기도합주회(Concert of Prayer)"를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목회자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자고 제안했고, 이 운동은 대각성 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 Log In Day의 기적

평소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실시간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2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Log In Day에는 1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오셨습니다. 그 시간에 접속하지 못하고 나중에 접속하신 분들을 합하니 무려 500여 명이었습니다.

우리 소중한사람들은 같은 교회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각기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에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대략 450개 교회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다는 말이 아닐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는 말씀이 실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바라건대, 유정옥 사모님께서 즉각 석방되시고 7월 첫째 주 Log In Day에 설교자로 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이 연제가 되든,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힐링센터 사역 확장을 이루실 때까지,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Log In Day - 이 이름은 우리 회원들이 유튜브에 접속(log in)하여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도합주회처럼, 우리의 Log In Day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기도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Log In Day에서 만나요.

글 / 이성일

소중한사람들 서울역 암 환우 쉼터(Shelter) 이용안내



누가 사용할 수 있나?

1.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
2.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했던 분 중에 지내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구든 암환우여야 하고 병원 이용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별히 방사선 치료시에는 방사선 치료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치료하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쉼터 이용안내

1.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병원에 갈 때에 셔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환우들마다 달라서 돌아오는 셔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쉼터가 시작되면서 돌아올 경우 서울역에서 돌아오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김태희 전도사님과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단, 하루 이틀 서울역에서 머물고 돌아올 수 있으니 먼저 돌아오길 원하는 분은 기차로 이전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2. 퇴소했던 분들 중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오셨을 경우 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쉼터가 없어서 다른 친인척의 집이나 여관을 전전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3. 3일 이상의 장기 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만 치료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하셨을 때에 등록하신 보호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머물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쉼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와 동일하게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가 드려지며 3층 채플실에서 TV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 5월의 장미와함께



▲ 매일예배



▲ 서울역전도복발실습



▲ 성경독사상



▲ 성경통독



▲ 아침체조



▲ 오카리나 독송



▲ 오카리나연습



▲ 이마음병사



▲ 잣향기푸른솔나들이2



▲ 전도복발수료예배



▲ 텃밭 농사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청평 힐링센터 암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소중환자사람들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배O경(매암4기) - 1상 신약임상연구 약을 더 쓸 수 있게 하시고, 뇌전이 사라지게 하신 주님께서 중앙 100%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1. 임O국(임파결암4기) - 5/29일 CT 검사 결과 암세포가 사멸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유지항암을 당분간 배보자고 합니다. 위암, 임파결암 내려되어 전도사의 사망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 이O진(년소암4기 림프전이) - 표적항암제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3. 강O영(삼중음성 유방암, 뇌전이) - 김미나이프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회복과 치료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존에 있는 혹들도 사멸시켜 주옵소서
4. 서O순(유방암) - 지금까지 모든 치료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치료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사멸되고 완치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5. 최O진(자궁내막암4기) -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 불안할 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치료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하옵소서
6. 추O석(항암, 폐암) -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7. 오O경(항암, 간, 폐전이) - 5월 검사 결과 간 췌장 임파선의 암세포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하나님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8. 이O욱(유방암, 종선암) - 피부림프종으로 일주일여 두 번씩 광선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저의 영혼, 육체에 일체하여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 살게 하옵소서
9. 황O중(협착증) -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치시켜 주실 줄 믿고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 남O진(위암) - 항암치료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글수기능(백혈구, 호중구, 혈소판, 적혈구등)이 정상수치가 되도록, 항암부작용 특히 토하는 것과 메스꺼움을 잘 이겨내기도 기도합니다.
11. 황O자(매암4기) - MRI, CT 검사에서 조금 붙어 있는 암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영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2. 김O월드(발성 글수증) - 항암치료 중에 있으시니 암세포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병원사역 중 병명 받아 왔으니 다시 사역 현장에 돌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13. 남O자(매암) - 5/4일 조직검사 결과 수술 후 깨끗하여 6개월 후 검사와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음식 삼킬 때와 걷고 움직일 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하는데 숨이 차고 힘이 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14. 김O민(년소암4기 임파선암, 전립선암) - 편도암, 임파선암, 전립선암을 깨끗이 소멸되기 위하여 세포독성항암의 부작용(저혈압, 당뇨)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옵소서
15. 김O데(항암, 백막, 글반전이) - 5/27일부터 새로운 항암 연하루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 잘 견디고 승리하시길 것처럼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6. 김O금(당암) - 새로 시작한 연하루 항암으로 암세포가 사멸되고 완치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17. 송O순(위암) - 6/9 진료, 6/30 전신 뼈 검사와 CT 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 되고 확증되게 하옵소서
18. 박O현(위암) - 하나님이 보호하시라 질병의 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의 질병은 나에게서 떠나갑시다. 전이 재발 없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19. 정O욱(유방암) - 절로다가 내게 잘맞아 암이 제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부작용(부종, 손발 물집, 무기력, 어지럼증, 소화불량) 효과는 최대한 발휘하게 하옵소서
20. 전O욱(유방암) - 감상선 결절이 완전히 소멸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21. 김O석(항암, 전립선암) - 재항암은 7/6일 검사 후에 항암을 결정합니다. 전립선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2. 유O희(매암) - 초1기에 발견하게 하시고 신속히 치료받게 하시며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소사원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순하게 이어지게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손, 믿음의 손, 순종의 손으로 주님 손잡고 모든 의심 물리치고 강건해지는 영혼유익 되도록 하옵소서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약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육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2026년 5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확장소망헌금●

경주한빛교회(50,000) 김명식(50,000) 김병식(100,000) 김점숙(50,000) 오분순(500,000) 울산오복가정교회(100,000) 윤경선(50,000) 임종국(500,000)
전두회(50,000) 전주유원교회(250,000) 주남깨감사(100,000) 최영자(200,000) 최정미(100,000)

●목적헌금●

조은래(7,499,889) 서미순(1,000,000)

●천사헌금●

최해정(1,000,000) 정순례(1,000,000) 문승복(500,000) 남순자(1,000,000) 이은순(1,000,000)

●십일조●

강오승(50,000) 김예중(50,000) 김홍덕(160,000) 박갑진(316,000) 박선인(130,000) 박용범(460,000) 배운경(70,000) 변영미(500,000)
심윤화(260,000) 오은경(600,000) 유병희(300,000) 이상일(300,000) 이수미(1,000,000) 임종국(500,000) 전정옥(850,000) 최영자(140,000)

●주일헌금●

김병식(60,000) 서미순(40,000)

●감사헌금●

SUNGHAS(100,000) 강금숙(10,000) 강신영(400,000) 고선희(30,000) 구민정(20,000) 권점옥(150,000) 권태준(10,000) 김기연(10,000)
김기철(40,000) 김덕용(50,000) 김명식(50,000) 김미희(250,000) 김미희(20,000) 김병식(1,300,000) 김보영(100,000) 김순금(500,000)
김순환(50,000) 김영관(100,000) 김예중(250,000) 김익숙(100,000) 김유미(30,000) 김준(150,000) 김진성(70,000) 김형진산영재(100,000)
김혜영(50,000) 김혜은(20,000) 김해정(40,000) 김홍덕(500,000) 남순자(80,000) 남승범(400,000) 류병완(100,000) 박광숙(100,000)
박선인(150,444) 박재숙(10,000) 박지현(230,000) 박진숙(20,000) 방운순(50,000) 배운경(500,000) 백인아(10,000) 백연미(20,000)
변영미(100,000) 서강일(50,000) 서미순(400,000) 서예지(100,000) 소한태(10,000) 송영수(200,000) 신사회(50,000) 심태영(200,000)
양경림(50,000) 양진목(100,000) 영애식(10,000) 오분순(150,000) 오은경(200,000) 오임순(20,000) 유병희(100,000) 유명미(60,000)
이동원,전우정(750,000) 이상길(20,000) 이상일(400,000) 이양희(10,000) 이창호(100,000) 이해숙(50,000) 이해옥(350,000) 이화진(550,000)
임경남(10,000) 임경희(50,000) 임종국(1,000,000) 장선옥(10,000) 장해란(350,000) 전태진(50,000) 전선희(30,000) 전정옥(250,000)
정동익(30,000) 정숙(50,000) 정아연(50,000) 정종순(400,000) 정한길(380,000) 정태웅(300,000) 조홍제(305,815) 최애진(200,000)
최영자(90,000) 최영희(10,000) 최옥자(100,000) 최은선(50,000) 최혜령(100,000) 추종식(600,000) 한창식(400,000) 한혜경(10,000)
허경순(50,000) 황명자(290,000) 황보순(100,000)

●기관후원헌금●

(주)강세라믹(1,000,000) 가락재일교회(100,000) 경영산업(100,000) 권오성의원(10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서울중앙교회(100,000)
소망교회사랑나눔부(300,000) 왕송약국(500,000)

●정기후원금(CMS)●

강지수(10,000) 공은영(30,000) 김민정(20,000) 김성희(20,000) 김성희(20,000) 김순금(100,000) 김영배(50,000) 김영신(30,000)
김원돈(30,000) 김운집(30,000) 김인영(50,000) 김조(15,000) 김진열(50,000) 김진영(1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김화연(20,000) 김효진(100,000) 김희자(15,000) 나지용(15,000) 남승범(30,000) 단선화(50,000) 도주은(100,000) 문희순(10,000)
박경미(20,000) 박경수(100,000) 박성환(50,000) 박연정(10,000) 박완준(50,000) 박윤희(30,000) 박정우(3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열(10,000) 상인숙(250,000) 송연숙(50,000) 송필례(30,000) 양용식(30,000) 양윤정(100,000) 오분순(20,000)
오선희(50,000) 유미형(10,000) 윤성근(20,000) 윤성희(50,000) 윤인초(10,000) 윤종순(30,000) 이금순(50,000) 이다연(10,000)
이미진(10,000) 이상림(100,000) 이소영(30,000) 이승은(30,000) 이은숙(10,000) 이재화(30,000) 이정자(50,000) 이주현(10,000)
이준영(10,000) 이찬선(5,000) 이해경(50,000) 임성숙(30,000) 장소현(30,000) 장승아(10,000) 장호형(50,000) 정경희(30,000)
정미선(50,000) 정예은(5,000) 정우찬(30,000) 정은경(20,000) 정일금(10,000) 정현영(50,000) 조남남(20,000) 조숙(10,000)
조영실(40,000) 조재성(10,000) 최성(20,000) 최신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임(20,000) 허정숙(20,000)
하혜원(10,000) 한선주(20,000) 홍금주(10,000) 홍덕기(50,000) 황준희(20,000)

청평힐링센터 2026년 5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8,499,889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224,718
천사헌금	4,5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1,999,970
확장소망헌금	2,050,000	식자재구입비	8,004,240
십일조	5,496,000	전기요금	3,496,310
감사헌금	15,106,259	합산보험료	1,985,100
CMS헌금	2,975,000	LPG가스요금	629,800
주일헌금	100,000	안전관리비	359,600
기관후원	2,500,000	집기구입비	2,460,290
		급여인건비	17,007,040
		우편발송비	254,140
금월 수입 합계	41,227,148	지출 총액	37,421,208
전월 이월금	-1,192,633		
총 수입 합계	40,034,515	금월 잔액	2,613,307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김병식(10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200,000) 임종국(300,000) 임종국(200,000) 전두회(50,000) 전두회(100,000) 한승환(100,000) 한창식(1,000,000) 황우진(3,000,000)
2월: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김재정(80,000) 박승호(100,000) 오분순(200,000) 울산오복가정교회(100,000) 이해옥(200,000) 임종국(500,000) 전두회(50,000) 최정미(100,000)
3월: 임종국(1,300,000) 최영자(300,000) 오분순(300,000) 남승범(20,000) 충성(100,000) 확장헌금(50,000) 김병식(100,000) 전두회(50,000) 신은철(20,000) 최정미(100,000)
4월: 울산오복가정교회(100,000) 경주한빛교회(50,000) 오분순(500,000) 강정운(20,000) 충성(100,000) 이해옥,송기승(172,000) 김병식(100,000) 전두회(50,000) 최정미(100,000)
5월: 경주한빛교회(50,000) 김병식(100,000) 김점숙(50,000) 오분순(500,000) 울산오복가정교회(100,000) 윤경선(50,000) 임종국(500,000) 전두회(50,000) 전주유원교회(250,000) 주남깨감사(100,000) 최영자(200,000) 최정미(100,000)

* 5월말 현재 총, 192,032,442원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6년 5월 씨앗헌금 후원: 김행심(10,000) 성찬영(300,000) 이성숙(20,000) 한중석(200,000)

2026년 5월 소나무헌금 지출: 이○옥(871,500) 남○범(1,146,400) 추○석(722,880)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쉼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7195-3045 이성일 목사).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역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에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5월 가입자 명단 (5명)

645 최해경 646 정순래 647 문승복 648 남승자 649 이은선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영옥	2	최희정	3	최희정	4	유재민	5	이영주	6	김수영	7	송준근	8	이혜수	9	조주영	10	단영희	11	박현희	12	정동영	13	조현진	14	정경익
15	이연희	16	박정혜	17	최희정	18	김영희	19	최유주	20	성기현	21	박연희	22	박연희	23	박연희	24	박연희	25	박연희	26	박연희	27	박연희	28	박연희
29	김영희	30	송수영	31	김영희	32	김영희	33	김영희	34	김영희	35	김영희	36	김영희	37	김영희	38	김영희	39	김영희	40	김영희	41	김영희	42	김영희
43	송수영	44	김영희	45	김영희	46	김영희	47	김영희	48	김영희	49	김영희	50	김영희	51	김영희	52	김영희	53	김영희	54	김영희	55	김영희	56	김영희
57	송수영	58	김영희	59	김영희	60	김영희	61	김영희	62	김영희	63	김영희	64	김영희	65	김영희	66	김영희	67	김영희	68	김영희	69	김영희	70	김영희
71	김영희	72	김영희	73	김영희	74	김영희	75	김영희	76	김영희	77	김영희	78	김영희	79	김영희	80	김영희	81	김영희	82	김영희	83	김영희	84	김영희
85	김영희	86	김영희	87	김영희	88	김영희	89	김영희	90	김영희	91	김영희	92	김영희	93	김영희	94	김영희	95	김영희	96	김영희	97	김영희	98	김영희
99	김영희	100	김영희	101	김영희	102	김영희	103	김영희	104	김영희	105	김영희	106	김영희	107	김영희	108	김영희	109	김영희	110	김영희	111	김영희	112	김영희
113	김영희	114	김영희	115	김영희	116	김영희	117	김영희	118	김영희	119	김영희	120	김영희	121	김영희	122	김영희	123	김영희	124	김영희	125	김영희	126	김영희
127	김영희	128	김영희	129	김영희	130	김영희	131	김영희	132	김영희	133	김영희	134	김영희	135	김영희	136	김영희	137	김영희	138	김영희	139	김영희	140	김영희
141	김영희	142	김영희	143	김영희	144	김영희	145	김영희	146	김영희	147	김영희	148	김영희	149	김영희	150	김영희	151	김영희	152	김영희	153	김영희	154	김영희
155	김영희	156	김영희	157	김영희	158	김영희	159	김영희	160	김영희	161	김영희	162	김영희	163	김영희	164	김영희	165	김영희	166	김영희	167	김영희	168	김영희
169	김영희	170	김영희	171	김영희	172	김영희	173	김영희	174	김영희	175	김영희	176	김영희	177	김영희	178	김영희	179	김영희	180	김영희	181	김영희	182	김영희
183	김영희	184	김영희	185	김영희	186	김영희	187	김영희	188	김영희	189	김영희	190	김영희	191	김영희	192	김영희	193	김영희	194	김영희	195	김영희	196	김영희
197	김영희	198	김영희	199	김영희	200	김영희	201	김영희	202	김영희	203	김영희	204	김영희	205	김영희	206	김영희	207	김영희	208	김영희	209	김영희	210	김영희
211	김영희	212	김영희	213	김영희	214	김영희	215	김영희	216	김영희	217	김영희	218	김영희	219	김영희	220	김영희	221	김영희	222	김영희	223	김영희	224	김영희
225	김영희	226	김영희	227	김영희	228	김영희	229	김영희	230	김영희	231	김영희	232	김영희	233	김영희	234	김영희	235	김영희	236	김영희	237	김영희	238	김영희
239	김영희	240	김영희	241	김영희	242	김영희	243	김영희	244	김영희	245	김영희	246	김영희	247	김영희	248	김영희	249	김영희	250	김영희	251	김영희	252	김영희
253	김영희	254	김영희	255	김영희	256	김영희	257	김영희	258	김영희	259	김영희	260	김영희	261	김영희	262	김영희	263	김영희	264	김영희	265	김영희	266	김영희
267	김영희	268	김영희	269	김영희	270	김영희	271	김영희	272	김영희	273	김영희	274	김영희	275	김영희	276	김영희	277	김영희	278	김영희	279	김영희	280	김영희
281	김영희	282	김영희	283	김영희	284	김영희	285	김영희	286	김영희	287	김영희	288	김영희	289	김영희	290	김영희	291	김영희	292	김영희	293	김영희	294	김영희
295	김영희	296	김영희	297	김영희	298	김영희	299	김영희	300	김영희	301	김영희	302	김영희	303	김영희	304	김영희	305	김영희	306	김영희	307	김영희	308	김영희
309	김영희	310	김영희	311	김영희	312	김영희	313	김영희	314	김영희	315	김영희	316	김영희	317	김영희	318	김영희	319	김영희	320	김영희	321	김영희	322	김영희
323	김영희	324	김영희	325	김영희	326	김영희	327	김영희	328	김영희	329	김영희	330	김영희	331	김영희	332	김영희	333	김영희	334	김영희	335	김영희	336	김영희
337	김영희	338	김영희	339	김영희	340	김영희	341	김영희	342	김영희	343	김영희	344	김영희	345	김영희	346	김영희	347	김영희	348	김영희	349	김영희	350	김영희
351	김영희	352	김영희	353	김영희	354	김영희	355	김영희	356	김영희	357	김영희	358	김영희	359	김영희	360	김영희	361	김영희	362	김영희	363	김영희	364	김영희
365	김영희	366	김영희	367	김영희	368	김영희	369	김영희	370	김영희	371	김영희	372	김영희	373	김영희	374	김영희	375	김영희	376	김영희	377	김영희	378	김영희
379	김영희	380	김영희	381	김영희	382	김영희	383	김영희	384	김영희	385	김영희	386	김영희	387	김영희	388	김영희	389	김영희	390	김영희	391	김영희	392	김영희
393	김영희	394	김영희	395	김영희	396	김영희	397	김영희	398	김영희	399	김영희	400	김영희	401	김영희	402	김영희	403	김영희	404	김영희	405	김영희	406	김영희
407	김영희	408	김영희	409	김영희	410	김영희	411	김영희	412	김영희	413	김영희	414	김영희	415	김영희	416	김영희	417	김영희	418	김영희	419	김영희	420	김영희
421	김영희	422	김영희	423	김영희	424	김영희	425	김영희	426	김영희	427	김영희	428	김영희	429	김영희	430	김영희	431	김영희	432	김영희	433	김영희	434	김영희
435	김영희	436	김영희	437	김영희	438	김영희	439	김영희	440	김영희	441	김영희	442	김영희	443	김영희	444	김영희	445	김영희	446	김영희	447	김영희	448	김영희
449	김영희	450	김영희	451	김영희	452	김영희	453	김영희	454	김영희	455	김영희	456	김영희	457	김영희	458	김영희	459	김영희	460	김영희	461	김영희	462	김영희
463	김영희	464	김영희	465	김영희	466	김영희	467	김영희	468	김영희	469	김영희	470	김영희	471	김영희	472	김영희	473	김영희	474	김영희	475	김영희	476	김영희
477	김영희	478	김영희	479	김영희	480	김영희	481	김영희	482	김영희	483	김영희	484	김영희	485	김영희	486	김영희	487	김영희	488	김영희	489	김영희	490	김영희
491	김영희	492	김영희	493	김영희	494	김영희	495	김영희	496	김영희	497	김영희	498	김영희	499	김영희	500	김영희	501	김영희	502	김영희	503	김영희	504	김영희
505	김영희	506	김영희	507	김영희	508	김영희	509	김영희	510	김영희	511	김영희	512	김영희	513	김영희	514	김영희	515	김영희	516	김영희	517	김영희	518	김영희
519	김영희	520	김영희	521	김영희	522	김영희	523	김영희	524	김영희	525	김영희	526	김영희	527	김영희	528	김영희	529	김영희	530	김영희	531	김영희	532	김영희
533	김영희	534	김영희	535	김영희	536	김영희	537	김영희	538	김영희	539	김영희	540	김영희	541	김영희	542	김영희	543	김영희	544	김영희	545	김영희	546	김영희
547	김영희	548	김영희	549	김영희	550	김영희	551	김영희	552	김영희	553	김영희	554	김영희	555	김영희	556	김영희	557	김영희	558	김영희	559	김영희	560	김영희
561	김영희	562	김영희	563	김영희	564	김영희	565	김영희	566	김영희	567	김영희	568	김영희	569	김영희	570	김영희	571	김영희	572	김영희	573	김영희	574	김영희
575	김영희	576	김영희	577	김영희	578	김영희	579	김영희	580	김영희	581	김영희	582	김영희	583	김영희	584	김영희	585	김영희	586	김영희	587	김영희	588	김영희
589	김영희	590	김영희	591	김영희	592	김영희	593	김영희	594	김영희	595	김영희	596	김영희	597	김영희	598	김영희	599	김영희	600	김영희	601	김영희	602	김영희
603	김영희	604	김영희	605	김영희	606	김영희	607	김영희	608	김영희	609	김영희	610	김영희	611	김영희	612	김영희	613	김영희	614	김영희	615	김영희	616	김영희
617	김영희	618	김영희	619	김영희	620	김영희	621	김영희	622	김영희	623	김영희	624	김영희	625	김영희	626	김영희	627	김영희	628	김영희	629	김영희	630	김영희
631	김영희	632	김영희	633	김영희	634	김영희	635	김영희	636	김영희	637	김영희	638	김영희	639	김영희	640	김영희	641	김영희	642	김영희	643	김영희	644	김영희
645	김영희	646	김영희	647	김영희	648	김영희	649	김영희	650	김영희	651	김영희	652	김영희	653	김영희	654	김영희	655	김영희	656	김영희	657	김영희	658	김영희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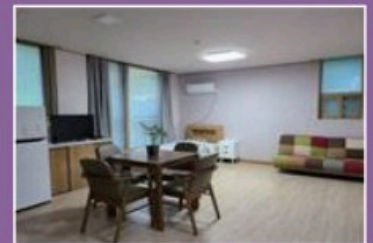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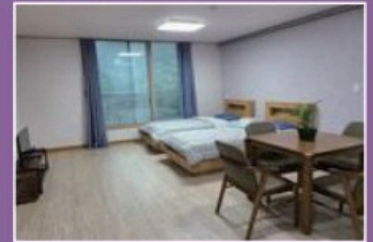
전화 031-582-0191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쉼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자 처럼 로덤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쉼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1.김○중 (4일이용)

3박 4일 동안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머물며 몸과 마음이 참 많이 쉬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은혜와 따뜻함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도착했을 때부터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처음 혼자 가는 길이었지만 금방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숙소도 정말 깨끗하고 편했고, 무엇보다 매 끼니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음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료로 운영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사랑과 섬김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중보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고, 무엇보다 제 신앙의 기본이었던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책길의 맑은 공기와 자연도 참 좋았고, 함께 계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단순한 십 이상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유○미(5일이용)

11월 3일 폐 절제 수술 후 호흡이 불편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성일 목사님의 귀한 집회, 환우분들의 따뜻한 사랑, 행정목사님의 자상한 배려로 완벽해야 할 이곳에서 유정옥 사모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졸졸 흐르던 시냇물이 하룻밤 비로 소리 내어 우는 큰 강물이 된 것처럼, 유정옥 사모님과 목사님을 통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3.최○자(5일이용)

영적 충전과 힘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지인으로 부터 소중한사람들 리트릿센터를 소개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입소 절차를 마치고 숙소를 안내받았는데 너무 쾌적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녹색 경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 두 번의 예배는 영혼을 회복시켰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힐링센터에 계신 환우분들의 밝은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하신 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천국의 축소편' 같은 이곳에서 미래의 천국을, 그리고 영원히 거할 본향을 바라보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도 잘 먹고,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사랑을 깊이 배우고 갑니다.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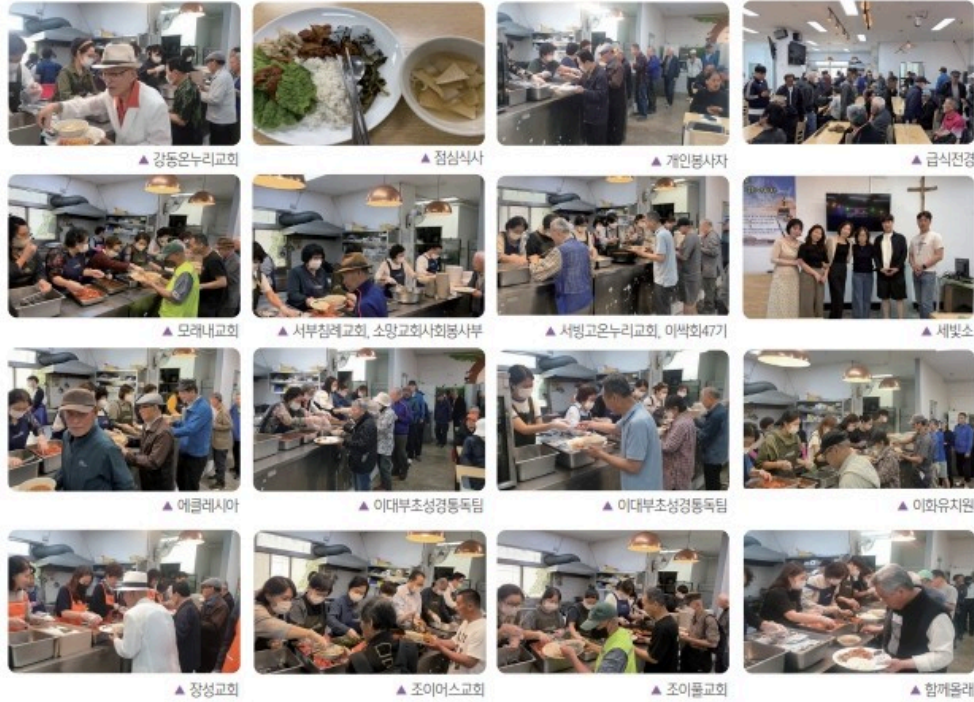
전도자들은 노숙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적게나마 나누어 드리고, 노숙인들은 감사로 화답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성일, 이주희, 김명옥, 박종수, 강원봉, 김정미, 송기승, 이상훈, 최영화
나눔 품목: 단팥빵, 커피, 옷, 육개장사발면



소중한사람들 교회



▲ 강동은누리교회 ▲ 점심식사 ▲ 개인봉사자 ▲ 금식집회
 ▲ 모래내교회 ▲ 서부침례교회, 소망교회사회봉사부 ▲ 서빙고은누리교회, 이백회47기 ▲ 세빛소
 ▲ 에클레시아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이화유치원
 ▲ 장성교회 ▲ 조이어스교회 ▲ 조이풀교회 ▲ 함께올래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70~9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5월에는 서부침례교회(2일), 소망교회사회봉사부(2일), 이대부초성경동독팀(5일, 19일, 26일), 장성교회(7일), 에클레시아(9일), 조이어스교회(14일), 함께올래(16일), 서빙고은누리교회(19일), 이백회47기(19일), 세빛소(20일), 강동은누리교회(22일), 모래내교회(23일), 이화유치원(28일), 조이풀교회(30일)가 봉사에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권경희, 권미조, 김영숙, 김진숙, 박대근, 박봉희, 박은순, 박진희, 송경숙, 송홍렬, 심지현, 이소영, 이은영, 이향자, 임은엽, 전두희, 최경희, 최금연, 홍은영, 황보혜, 한현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상훈, 홍지영, 기정아, 이지영, 허정만, 한송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윤화, 최영화... 개인 봉사자들이 주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은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일 이성일,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중,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이성웅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몸과 영혼 치유 사역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9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9년동안 한결 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사전 예약 필요 없이 토요일에 오면 누구나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5월 9일 점심도 드시지 못하고 소중한사람들로 달려와 14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1:50-3:30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106회가 되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4월에 강해 중인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 기도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 공동의 기도 개인 요청기도를 함께 중보하며, 아픈 자들의 치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중보기도 제목

1. 소중한사람들 서울 노숙인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
2. 소중한사람들 청평 암한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영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진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바,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베트남
4. 치유 - 이혜숙, 배운경, 김흥덕, 김순금, 임종국, 이희진, 오분순, 송영수, 강신영, 박지현, 서미순, 정종순, 김예중, 정진길, 남승범, 장해란, 전정옥, 김병식, 추종석, 황명자, 최애진, 김기철, 오은경, 김준, 김진성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5.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래, 김현중,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희,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재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우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이철민, 김지연, 유희광, 조규철, 이병실, 구현주, 전상희, 이광미, 천정의 병전자, 박철민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신항진님 근육속중 치료 신약 노바티스 Itrisma 가격이 내려가고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을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다양한 봉사 참여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초성경동동팀, 소중한찬양단, 박종수목사님
- * 소식지 우편물 작업 지원해주신 이대부초성경동동팀
- * 14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 26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
-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팀과 개인봉사들
- * 특송으로 예배를 섬기신 에클레시아, * 구디백 후원품을 준비하시고 나누신 에클레시아
- * 서울역 전도를 위해 부식을 나눔을 준비해주신 개인 봉사자, * 부식물을 후원하시고 나눠주시는 만리현감리교회
- * 오키리나 연주로 부활절 예배를 섬기신 청평힐링센터 암 환우 모두 감사합니다



▲ 청평힐링센터 전도책발 싹



▲ 서무침례교회 특송



▲ 김도은 피아노 특송



▲ 에클레시아 특송



▲ 조이어스교회 무사 준비



▲ 청평힐링센터 전도책발 싹



▲ 박용식 후원옷 나눔 준비



▲ 이대부초성경동동팀 최요혜에 전방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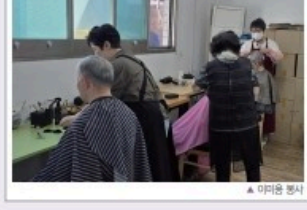
▲ 이백화4기 소식지제작 지원



▲ 세빛소 후원금 전달



▲ 소중한찬양단 김요혜에 전방전도



▲ 이거용 봉사

후원물품

- * 따뜻한 단팥빵을 후원하신 예수항기교회 박명자전도사님 * 육개장사발면을 후원하신 무명, 조이폴교회 * 김치를 후원하신 조이폴교회
- * 떡으로 노숙인을 대접하신 장성교회, 청평힐링센터암환우 * 전도용 구디백을 준비해서 노숙인들을 전도하신 청평힐링센터암환우
- * 바나나를 후원하신 에클레시아, 조이어스교회 이성진, 윤재호님 * 치킨을 후원하신 조이어스교회 이성진, 윤재호님
- * 서울역 전도를 위한 커피를 후원하신 김명옥님 * 파프리카를 후원해주신 이소영님 * 생필품을 후원하신 Korea Foreign School
- * 옷을 후원하신 박용식님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5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1일	김명옥	커피	6박스	매주일	나눔	서울역광장전도
2일	무명	육개장사발면	4박스	3일	나눔	서울역광장전도
7일	장성교회	쌀	9박스	7일	급식	노숙인
7일	이소영	파프리카	7박스	8일~	급식	노숙인
9일	에클레시아	바나나	3박스	9일	급식	노숙인
10일	청평힐링센터	전도용구디백	40개	15일	나눔	노숙인 전도
11일	박용식	옷	8박스	15,17일	나눔	노숙인, 서울역광장전도
13일	Korea Foreign School	물티슈	7박스	13일	나눔	노숙인
13일	Korea Foreign School	여성옷	7박스	13일	나눔	여성노숙인
13일	예수항기교회 박명자	빵	100개	13일	급식	노숙인
13일	조이어스교회 이성진 윤재호	치킨	100인분	13일	급식	노숙인
13일	조이어스교회 이성진 윤재호	바나나	3박스	13일	급식	노숙인
15일	청평암환우	떡	2박스	15일	급식	노숙인
20일	조이폴교회	육개장사발면	600개	21일~	나눔	노숙인, 서울역광장전도
20일	조이폴교회	김치	100kg	21일~	급식	노숙인
20일	조이폴교회	육개장사발면	240개	24일	나눔	서울역광장전도
20일	조이폴교회	육개장사발면	2박스	31일	나눔	서울역광장전도
20일	무명	육개장사발면	7박스	24일	나눔	서울역광장전도



▲ 무명 육개장사발면 4박스 ▲ 장성교회 쌀 9박스 후원 ▲ 이소영 파프리카 후원 ▲ 에클레시아 바나나 후원 ▲ 청평힐링센터 전도용구디백 후원 ▲ 박용식 옷 8박스 후원 ▲ 박용식 옷 8박스 후원
 ▲ 생활용품 후원 ▲ 여성옷 후원 ▲ 후원기과 박명자님 빵 100개 후원 ▲ 조이어스교회 치킨 후원 ▲ 조이어스교회 바나나 후원 ▲ 청평암환우 떡 후원 ▲ 이경은 육개장사발면 600개 후원
 ▲ 배미영 김치 100kg 후원 ▲ 무명 육개장사발면 6박스 후원 ▲ 권원희 육개장사발면 240개 후원 ▲ 김주은 육개장사발면 6박스 후원 ▲ 김명옥 커피 1000인분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
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누가복음 6장 32-36절)"

말씀에 반응하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유명한 여성 노숙인이 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샤넬 백을 들고 흰옷을 입고 오는 보기에는 참 우
아한 여성 노숙인입니다. 우아한 모습과는 다르게 말은 참 거칩니다. 멀리서부터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시비를 걸고 싸우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 노숙인은 지나가면서 공사장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건축 장비로 땅에 철근을 광둥 때려 박는 공사를
하던 기사는 자기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놀라 잠시 기계를 멈춥니다. 들어보니 '사람 지나가는데 시끄럽다'고 욕
하는 소리입니다. 기사는 참 기가 막혀합니다. 여성 노숙인은 건축을 잠시 멈출 정도의 사람입니다.

공사를 멈출 정도의 위력인데 당연히 다른 것들도 다 멈추게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던 남성 노숙자
가 밥을 먹다 말고 참 기가 막혀합니다.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밖에서 만났으면 넌 죽었
어."하며 씩씩 거립니다. 청소를 하던 봉사자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달려붙어서 말리고 화를 풀어주려고 애쓰니
다. 여성 노숙인은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는 밥을 품위 있게 먹습니다.

다른 노숙인들이 앞 다투어 그 여성 노숙인에 대해 말해줍니다. 다른 급식소들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켜 다시
는 못 오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밥 먹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소중한사람들 뿐입니다.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하
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 예배를 드리고 식사해야 하는데 그 노숙인은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천
천히 걸어옵니다. 물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싸우면서 옵니다. 이 여성 노숙인은 3-4인분을 혼자서 먹
습니다. 밥을 산처럼 쌓아놓고 먹습니다. 김치를 참 좋아해서 김치를 5번을 다시 떠먹습니다. 반찬들도 엄청 먹
습니다. 저걸 어떻게 다 먹나 싶지만 결국은 정말로 다 먹습니다.

그만 오면 좋겠다하다가도 어느 날인가 안 오면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을 텐데...' 하며 또 걱정되고 불안합니
다. 칭찬받고 사랑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
게도 인자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자비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 노숙인에게 더 좋은 것을 먹고 싶나봅니다. 후원품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너
무 많아 냉장과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김치를 후원 받았는데 양이 많아서 2번에 나눠서 배달이 왔습니다. 이
미 좋은 상등급 쌀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숙인에게 더 좋은 쌀 먹고 싶으신지 특등급 철원 쌀

400kg이 도착했습니다. 한 끼 밖에 못 먹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은 노숙인이 식사 후에 나가는 길에도 된
가를 손에 들고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바나나, 육개장사발면, 단팥빵을 손에 쥐어주고 가게 하십니다. 뒤라도
더 챙겨주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가 넘치는 아버
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십일조로, 목적현금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관헌금, 정기후원(CMS), 천사후원헌금, 소나무헌금, 학
장헌금, 교회헌금, 고아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소식지에 기록하며 다시금 이 이름들을 하나님
께서 기억해주시고 직접 갚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앓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
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의 사정을 주시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할 때에 전해주고자 늘 살피고 있습니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 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을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청평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 환우

이혜옥, 배윤경, 김흥덕, 김순금, 임종국, 이희진, 송영수, 강신영, 박지현, 서미순, 정종순, 김예중, 남승범, 전정욱, 김병식, 추종석, 황명자,
최애진, 김기월, 오은경, 김준, 남순자, 유병희

청평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숙,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
옥, 김순정, 최정민,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운,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유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규, 조규철, 이병설, 구현주, 전상희, 이광미, 천정희, 방연자, 박철
민, 서종열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2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
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드림

2026년 5월 소중한사람들 정기후원금(CMS)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GBP(100,000)	강금내(50,000)	강도숙(10,000)	강면구(20,000)	강명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지현(10,000)	강현미(20,000)	강희란(10,000)
고건화(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삼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정아(10,000)	권혁선(10,000)	김경리(10,000)	김경미(20,000)	김경민(1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광찬(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진(3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란수(20,000)	김명수(150,000)	김명순(1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화(10,000)	김미화2(20,000)	김민경(30,000)	김번옥(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보연(30,000)	김보연(5,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소라(10,000)	김소향(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2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순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연옥(10,000)	김영상(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옥(20,000)	김영민(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오례(10,000)
김용걸(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의환(5,000)	김인자(30,000)	김인주(50,000)	김일형(20,000)	김재정(80,000)	김종력(1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주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1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천열(20,000)
김태조(10,000)	김한나(5,000)	김행은(10,000)	김향은(5,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린(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효진(강원대)(50,000)	김희경(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한준(30,000)	도문식(30,000)	라미영(5,000)	류영순(5,000)
류승한(10,000)	류호정(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박경근(30,000)	박경목(10,000)	박경희(10,000)	박대은(5,000)	
박명자(10,000)	박명희(10,000)	박마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양미(4,000)	박연주(10,000)
박영수(1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재용(3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원(차은미)(10,000)	박진선(10,000)	박진철(1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현주(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오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사재신(20,000)	서기준(10,000)	서혜린(20,000)	석영란(10,000)	석진희(30,000)	성기빈(4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현경(10,000)	손현이(5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상신(1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송지영(10,000)	신서진(180,000)
신승우(40,000)	신영주(10,000)	신유은(100,000)	신은미(3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심장섭(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재희(10,000)	양진옥(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염영태(5,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홍기숙(50,000)
우창훈(4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민아(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정모(20,000)	유정열(10,000)	유준서(5,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환(1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희숙(30,000)	윤화영(1,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진(10,000)	이경화(30,000)	이경희(50,000)	이공이(100,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3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방훈(50,000)	이방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100,000)	이산복(20,000)	이산종(50,000)	이상진(20,000)	이상현(2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3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예원(1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유진(30,000)	이윤미(1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의신(10,000)	이의화(10,000)	이인용(20,000)	이재홍(백안순)(1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란(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10,000)	이종수(40,000)	이종호(30,000)
이주아(20,000)	이준옥(1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30,000)	이찬의(50,000)	이창호(50,000)	이하윤(50,000)	이향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혜진(5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수귀(10,000)	임수섭(3,000)	임수연(10,000)	임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란(30,000)
임윤엽(50,000)	임정화(10,000)	임혜순(30,000)	장국영(50,000)	장미현(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은별(50,000)	장인희(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영선(10,000)	전영숙(50,000)	전재국(10,000)	전해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유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윤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인철(50,000)	정재걸(5,000)	정재미(5,000)	정진숙(10,000)
정혜자(10,000)	정혜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새롬(10,000)	조성림(10,000)	조성완(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현미(10,000)	조혜숙(2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영자(50,000)	지재문(20,000)	진미재(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의(10,000)	최경선(20,000)	최경선(10,000)	최귀분(50,000)	최금련(30,000)	최민형(10,000)
최민홍(10,000)	최상해(10,000)	최영숙(3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원희(10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휘(10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100,000)	최혜정(2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가숙(1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진현(10,000)	함대문(10,000)	함지훈(10,000)
허미(10,000)	허시원(30,000)	허인애(30,000)	홍성경(30,000)	홍순경(20,000)	홍영희(5,000)	홍재필(20,000)	홍정희(10,000)
홍주연(2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 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 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소중한사람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 청평힐링센터 전화 031-582-019, 팩스 031-582-0199
- 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 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 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KR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 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현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일반현금계좌는 농협 351-7195-3045-83 으로 하시면 됩니다
- 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현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서울 소중한사람들 (노숙인사역) T. 02-365-9106 E-mail, street9106@naver.com

청평 힐링센터 (암환우사역) T. 031-582-0191 E-mail, sit224@hanmail.net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02-365-9104(노숙인사역) / F.031-582-0199(암환우사역)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남, 여)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암 환우 힐링센터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input type="checkbox"/> 미얀마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CMS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노숙인사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암환우사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TEL 031-582-0191 FAX 031-582-0199 www.pphealing.com